

## 南韓農業地域發達에 있어 地域的 및 部門內的 隔差

Eckart Dege

한국의 綠色革命은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도시 농촌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킨 한편, 농업부문간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에 의하면 농업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활발치 못한 지역간에, 또 개개 村落내에 사회경제적 계층화 현상이 증대하는 형태로서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sup>1)</sup>. 즉, 진취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농가와 전통적인 자급·반자급 농가간의 극화(polarization)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綠色革命이라는 수단의 결과로써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공공농업통계를 이용하여 진취적인 시장지향적 농가와 전통적 자급농가의 분화(differentiation)를 계량화하고, 사회경제적 지역구분을 행하려 할때는 이에 적절한 지표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마도 가장 좋은 지표는 총 농가 수입에 대한 환금액의 비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통계에서 직접 얻을 수가 없다. 농업통계는 농가를 판매된 농작물의 절대량에 의해 구분하며, 만약 사회경제적 계층과 농작물 판매량에 기초하여 정의된 계층을 상호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전국적인 분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매년 농수산부가 2,500 농가에 대해 행한 농가 경제조사 결과의 분석이 매우 유용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상이한 크기의 여러 계층을 위해 수행된 분석을 세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가장적인 평균농가경제를 채택한 방법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0.95 ha의 경작지와 5.6인의 가구 크기를 가진 가상농가는 240만 한국농가의 평균에 매우

근사하다. 농가소득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곡물재배가 주류를 이루고 비곡물 농업 특히 목축업의 수익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농업 경영 비용을 제외한 평균 농가의 농업소득은 715,000원 정도였다(1975). 이러한 농가소득은 임업·어업·수공업·농업 혹은 비농업적 임금 등과 같은 농업외 소득으로 보충되고 있다.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평균 농업의 소득은 158,000원에 달하여 총 농가소득은 873,000원 정도가 된다.

715,000원에 달하는 농업소득과 646,000원에 달하는 생활비·세금·이자 지불 등 총 지출비를 비교해 보면 평균 농가는 농업의 소득에 의한 부수입이 없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집약농업이 행해지는 한국에서는 0.95 ha의 소규모 경작지로서도 충분한 생활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농업 총수익의 44%만이 환금되고 56%는 곡물이다. 평균 농가의 주 목표가 일부시장 출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급자족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농가는 **자급 혹은 반자급농가**(Subsistenz- bis Semi-subsistenzbetriebe)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규모의 농가계층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농업 센서스가 행해진 1970년에 250,000원 이상의 농업생산물 판매량을 가진 농가에서는 농업생산량중 판매량이 자가소비량을 능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임계치(threshold value) 이상을 가진 농가는 시장 지향적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은 **시장 지향적 농가**(marktorientierte Betriebe)라 명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농가

1) Dege, E., 1979, *Entwicklungsdisparitäten der Agrarregionen Südkoreas*, Habilitationsschrift, Math.-Nat. Fak. d. Univ. Kiel 1979.

의 평균 경작지 면적은 2ha 이상이다.

한편, 10,000 원 이하의 판매량을 가진 농가의 농가소득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는 그들의 농가소득을 농업의 소득이나 보조에 의해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下限農家(Submarginalbetriebe)라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농가의 평균 경작지 면적은 0.5ha 이하이다.

그러나, 농업지역의 상이한 자연적·지리적 조건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술한 농가규모계층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 서부해안지역의 비옥한 평야에 2ha를 가진 농가는 250,000 원 이상의 미곡판매를 하는 시장지향농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면적을 소유한 동북부 산악지역의 농가는 자급적 농가로 또는 판매액이 10,000 원 이하인 不限農家로도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분류는 농가규모에 기초하지 않고 판매절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00 원 이하면 下限農家, 10,000 원 이상 250,000 원 이하이면 자급농가, 250,000 원 이상이면 市場指向農家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남한의 총 172 군과 시에 대해 각각 下限·自給的·市場指向農家の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된 한국농업지역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분류방법으로서는 cluster analysis (WARD's algorithm)가 채택되었으며 4 계층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cluster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층의 統合은 계속되었다.

- (A) 自給農家の 비율이 평균 이상인 市와 郡
  - (B) 自給 및 市場指向農家の 비율이 평균 이상인 市와 郡
  - (C) 下限 및 市場指向農家の 비율이 평균 이상인 市와 郡
  - (D) 下限農家の 비율이 평균 이상인 市와 郡
- 같은 계층에 속하는 시와 군끼리는 인접하여 폐쇄된 지역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Fig. 1).

한국과 같이 농업이 자급자족적 농업의 임계를 벗어나 市場指向農家로 전이되기 시작한 나라에서 시장지향농가의 비율이 평균치 이상인 지역은 관련 경제 및 사회활동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농업활동이 積極적인 지역(Aktivräume)과 소극적인 지역(Passivräume)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지역은 시장지향농가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곳으로서 A와 D 지역이 될 것이고 적극적 지역은 평균 이상인 B와 C 지역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의 산악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동해안 및 남해안 지역은 소극적 지역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자급농가의 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고 후자는 下限農家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미약한 농업소득이 어업 혹은 수산양식업에 의한 부차적인 소득으로 보충될 수 있는 곳이다. 下限農業이 탁월한 D지역은 한국도시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는 주로 도시화과정 중에서 농업이 부업으로 되면서 해체되어 가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농업활동이 적극적인 지역은 전통적 농업형태인 自給 및 下限農家도 물론 존재하지만 진취적인 시장지향농업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곳이다. 이 곳에서는 이미 사회경제적 계층화가 보다 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축으로 광범한 발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철도와 고속도로에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전통적인 자급농가와 진취적 시장지향성 농가가 함께 나타난다(B지역). 비옥한 서해안 및 남해안 평야의 중심부와 근교농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서울·부산·대구의 3대 도시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더욱 진전되었다. 이곳에서는 市場指向農家は 下限農家와 대조를 이룬다(C지역).

重回歸 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분석에서 한국농업지역의 사회경제적 분화는 기부를 비롯한 많은 자연지리적 조건 및 교통망 발달을 비롯한 많은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에 걸쳐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커다란 殘差 또한 남아 있다.

따라서, 상술한 전국규모의 거시적 분석을 여러 농업지역에서 선택된 표본부락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이 분석은 8개 부락에서 총 253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행하여졌다. 이 설문은 春·秋의 토지이용 지도화 및 토지소유 지도화로 보충되었는데, 이는 자급경작에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 농작물 재배 패턴이 설문만으로는 계량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지도화로서 토지소유와 개개 가구의 토지이용을 계량화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설문과 지도의 조합에 의해 매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현황을 상세히 반영하는 420개의 변수를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 과정은 설문에 응한 가구들을 사회경제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는 事前 정의된 분류 체계가 없이 행하여졌는데, 이는 RÖHM 등과 같은 유럽농업사회학자에 의해 발전된 체계가 직접 동부아시아 상황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얻어진 자료에 대한 cluster analysis에 의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변수로 사용되었다(참고 Tab. 1).

1. 농업생산의 기초를 특징지우는 경지규모
2. 소유구조를 특징지우는 임대토지의 비율
3. 총가구 소득
4. 소득구조를 특징지우는 비농업소득의 비율
5. 가구규모
6. 농업 노동력의 수
7. 가구 구성원당 평균 수학년수로 표현되는 교육수준
8. 총 가구 구성원의 평균연령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류에 의해 가구들은 7개의 형태로 구분되었다.

A. 평균 농가규모를 상회하고 대부분이 농업소득인 총소득이 평균을 상회하는 大農家(Großbetriebe).

이러한 家口는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家族構造를 가지는 데, 이는 비농업적 취업의 기본이 되는 고도의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가에 최소한 한 아들이 집에 남아서 후일 농사를 후계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다른 자녀들이 그들의 높은 교육수준에 따라 전망이 좋은 비농업적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족노동력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에 의해 보충받게 된다. 농업노동력의 절대수는 크지만

경작되는 농토의 규모에 비하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전될수록 농업의 집약화의 문제는 토지로부터 노동력으로 이전될 것이므로, 이러한 과거 농촌사회의 소수 양반층에서 출발한 농가들에서 더 이상의 집약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은 주로 주곡을 상품화하는데 그 노동력은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B. 專業農家(Vollbäuerliche Betriebe)는 평균 1.6 ha의 경지로부터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므로 비농업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농가이다. 평균 이상의 농업소득으로 평균 가구 소득을 상회하는 이 그룹은 총 가구소득의 90% 이상을 농업에서 얻고 있다. 평균 7.6 인으로 가구규모가 가장 큰 그룹인데 이는 소농가의 미약한 경제 기반으로 인한 압출 요인이나 대농가의 고등 교육수준에 의한 견인 요인을 갖지 않아 외부로의 이주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기 때문이다. 평균 이상의 가족규모에 상응하여 농업 노동자수도 평균을 상회하는데 특히 경작면적에 비해 볼 때 그러하다(大農家가 ha 당 0.9 인의 노동력인데 비해 2.2 인의 농업 노동력). 경지면적이 비교적 크고 농업 노동력이 많으며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체 설문가구의 거의 1/4을 점하는 이 형태의 농가는 농업 기술혁신, 특히 노동집약적 특용작물재배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급농업에서 시장지향성 농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C. 專業農家에 비해서 小農家(Kleinbauern)의 경지규모는 평균 0.6 ha 밖에 되지 않아 자급에 충분하지 않다. 미약한 경제적 기반이 압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육수준이 낮음에도 가구 구성인들의 외부로의 이주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농업 노동력수는 경지면적에 비례해 본다면 ha 당 4.4 인으로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규모가 매우 작은 경지면적에 이렇게 많은 농업 종사자 수가 있는 것은 잠재 실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시사해 준다.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은 비농업부문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가구형태의 전통적인 부수입원인 일당농업노동의 취업기회는 대농

가의 기계화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 설문가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下限小農家 그룹은 한국촌락의 문제집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세한 농지규모를 고려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많은 농업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특화를 하든가 충분한 비농업적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앞에는 농업혁신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교육수준이 장애로 가로 놓여 있다.

D. 小作農家(Pachtbauern)는 농업경작을 그들 자신의 토지가 아닌 주로 임대된 토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小農家와 구분된다. 대부분 도시에 접한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촌락에서 농지의 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비농업적 소득비율은 소농가집단보다 크고 경제적으로 향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 경제적으로 小農家·小作農家 때때로 專業農家보다 향상된 것이 兼業農家(Zu- und Nebenerwerbsbetriebe)이다. 그들의 경지면적은 0.35 ha에 불과하나 식량의 대부분을 공급받는데는 충분하며 높은 교육수준(가족평균 10.6년의 수학년도) 때문에 대부분의 현금소득을 비농업활동에서 얻고 있다. 가족형태는 이미 도시적인 소가족 형태가 지배적이며 도시에서 가까운 표본 부락에 국한되었다.

F. 殘留農家(Restbetriebe)는 그 구성원의 높은 평균연령에 의해 상술한 여러 농가형태와 구별된다. 이들은 장차 소멸되어 버릴 농가인데 과거 專業農家였다가 모든 자식들이 외부로 이동한 후 형성된 것이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그 농지규모가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專業農家보다는 향상된 편이다. 그러나 27%의 소득은 경작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한 가족 구성원의 정규적인 재정적 보조에 의한 것이다. 세대 교체에 따라 이러한 농가들은 소멸되어갈 것이다.

G. 이러한 농가들 외에 도시에 가까운 촌락에는 非農家(nichtlandwirtschaftliche Haushaltungen)가 있는데 이들은 농촌에 가까운 도시 주변부에 방울 세널 정도의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공업노동자이거나 농촌사회의 최하

층을 형성하는 일당 농업노동자들이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분류는 8개 표본부락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 비교는 서로 상이한 두 그룹의 촌락을 명확히 보여준다(참고 Tab. 2). 도시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 1, 제 2, 제 3, 제 6 촌락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전적으로 농업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7개의 非農家를 포함하는 제 2의 촌락을 제외하면 모든 촌락의 거의 전 가구가 농가인 것이다. 한편 도시에 가까이 위치한 제 4, 제 5, 제 7 촌락은 보다 사회경제적 계층화(stratification)가 진전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곳에서 순 농가는 66~78% 정도이고 19~21%는 비농가이며 나머지는 兼業農家이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개개 촌락내에서도 명확한 계층이 관찰될 수 있었다. 殘留農家를 제외하고 專業農家만을 고려할 때 大農家 혹은 小農家 및 小作農家に 비해 事業農家の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 3, 제 2, 제 1, 제 6 촌락 등의 촌락에서도 사회경제적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화는 제 1 및 제 6 촌락에서 가장 많이 진전되었다. 제 1 촌락은 중서부 해안에 위치하며 미곡생산의 특화로, 제 6 촌락은 특용작물 인삼의 재배로 된 고도로 상업화된 농업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발달은 도시에 가까이 위치한 제 4, 제 5, 제 7 촌락에서는 더욱 명확히 진전되고 있다. 제 4 촌락은 전통적으로 보다 작은 농가규모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한 大農家가 근교농업형태로 특화를 하고 있는데 대해 24 가구의 小農家 및 小作農가가 있으며 專業農家は 단지 5 가구밖에 안 된다. 이 사실은 市場指向性이 증가할수록 농촌사회의 계층화도 심화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겠다.

이러한 과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연 지리적 조건과 교통발달로 인한 도시에의 상대적 접근도를 제외한다면 주로 農地規模나 농촌인구의 教育水準이 될 것이다. 국민학교 이상의 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이 두 요인들은 피드백형태로 상호 연관되어 서로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들은 또 혁신을 받아들이는 농가의 능력과 수용태도를 동시에 지배한

다.

더우기 이러한 발전은 '綠色革命'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다. 專業農家와 大農가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과 고도의 교육수준에 힘입어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농업지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이다. 같은 이유로 해서 이들은 농자금 용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경작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 증산된 농산물은 판매될 수 있다. 이는 다시 그들의 경제적 선도주자의 역할을 강화시켜 더 많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농가 및 소작농가는 농업 지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불안한 경제적 상황과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이들은 혁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설사 혁신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 잉여수확물은 거의 판매되지 않는다. 자본 축적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들은 진취적 농가의 기계화 때문에 이제까지의 부차적인 소득원이었던 일당노동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설사 그들이 농업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면도 자본이 없는 형편이며 자녀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만한 능력도 없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들이 그들의 농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농업경관을 형성시키느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다음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 어느 정도의 농토가 특용작물 경작에 이용되는가?
- 어느 정도의 특용작물 경작지가 시장생산용에 이용되는가?
- 어느 정도의 주곡식부면적이 시장생산용에 이용되는가?

총 353家口의 설문 자료로 보자면 4개의 서로 다른 형태를 구분할 수 있었다.

- (1) 주곡 작물재배를 특화하여 평균비율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
- (2) 보편적인 경작행태를 보이는 비특화된 農家
- (3) 특용작물 생산과 판매를 특화한 농가

#### (4) 판매비율이 평균이하이고 주로 자급적인 농가

이 행태의 패턴과 사회경제적 가구형태를 행렬로 만들고 사회경제적 구조와 행태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단지 대농가와 비농가만이 독특한 행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타의 다른 사회경제적 그룹들은 주된 행태와 부차적인 행태 패턴으로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구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속한 촌락의 보편적인 행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촌락들을 개개로 분석하면 이 관찰은 단지 도시에서 원격히 위치한 촌락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도시에 근접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발전된 촌락들은 특정행태 패턴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촌락사회의 평준화에 주는 영향력을 약화시킴을 의미한다.

자세히는 논하지 않더라도 경작가능한 토지의 이용에 대한 몇가지 행태 패턴은 사회적 경제적 양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을 갖기 때문에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로, 모든 표본부락에서 주곡작물의 판매 비율은 소작농가, 소농가, 전업농가, 대농가로 가면서 경작토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이는 모든 그룹에 있어서 식량생산은 자가 소비가 시장공급에 우선하며 자급한 이후에 잉여면적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이 시장생산에 이용될 뿐이라는 일반적 관찰을 분명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둘째로, 도시에서 원격히 위치한 촌락에서는 주로 시장공급용인 특용작물의 비율이 토지구모가 큰 방향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도시에 가까운 촌락에서는 소농가, 전업농가, 대농가로 갈수록 특용작물의 비율이 감소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촌락에서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의 농업집약화의 주역은 전업농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충분한 노동력과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농가는 생산요소 중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농가는 토지가 부족한 것이다. 대농가는 노동요소를 자본 즉 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보다 기계화가 용이한 주곡생산을 특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농가는 그들로서는 불리한 여건인 낮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잉여노능력을 비농업 경제부문에 유출하도록 계속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MYRDAL의 누적 순환모델을 한국에 적용시켜 볼 때 한국농촌사회에는 하나가 아닌 두개의 나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한 나선은 진취적 농업부문으로서 '綠色革命'의 성공과 더불어 계속 상향하는 반면에 또 다른 나선인 전통적인 농업부문은 계속

하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한국 농업발달에 대해 이원적인 견해를 요구하며 따라서 이원적인 구조개선 수단이 채택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진취적 농업부문 쪽에 편향된 효과를 주는 '녹색혁명'의 수단에 병행하여 전통적 부문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MYRDAL의 누적 순환 나선의 방향이 전통적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한국농촌사회의 대부분을 실질적인 황폐화로 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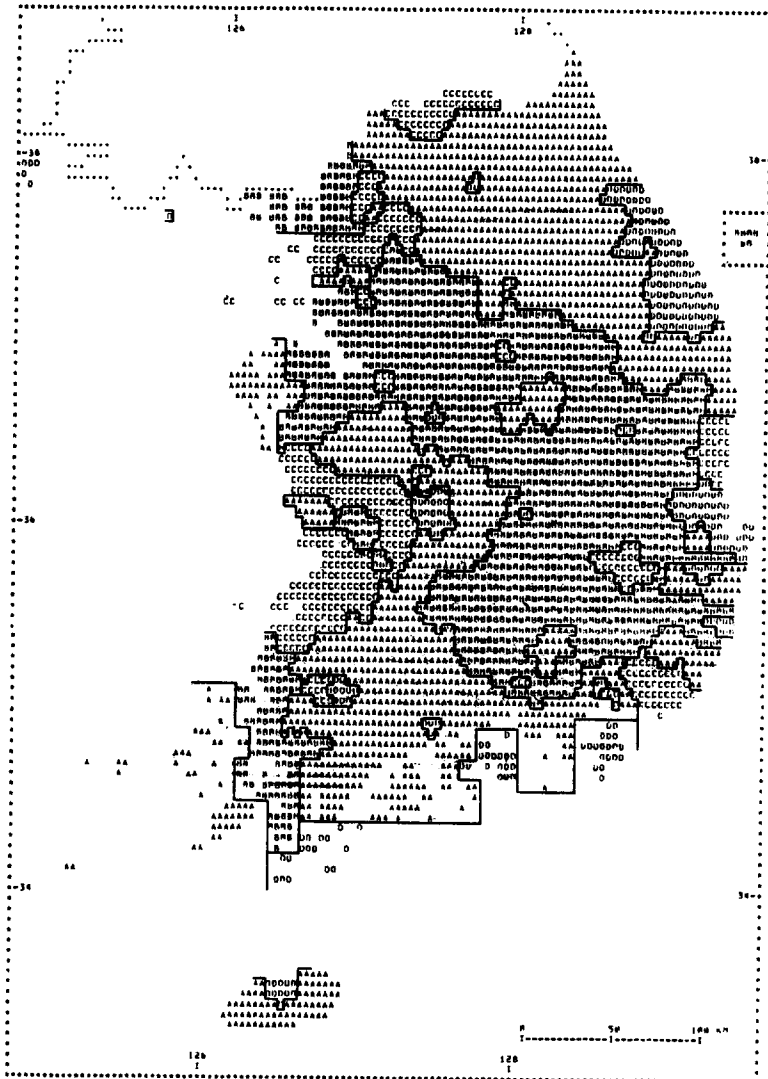


Fig. 1 Socioeconomically defined Agrarian Regions

Tab. 1 Data on the structure of the socioeconomic household types in the 8 sample villages (1975)

|                          | farm size (ha) | leased land (%) | total household income (100W/year) | per capita income (1000W/year) | nonagricultural income (%) | family size (persons) | agricultural laborers (persons) | agricultural laborers (persons/ha) | educational level (years of schooling) | average age (years) |
|--------------------------|----------------|-----------------|------------------------------------|--------------------------------|----------------------------|-----------------------|---------------------------------|------------------------------------|--|---------------------|
| A (large farms)          | 3.64           | 11.6            | 6,017                              | 885                            | 15.8                       | 6.8                   | 3.2                             | 0.9                                | 7.6                                    | 34.5                |
| B (family farms)         | 1.64           | 8.6             | 2,060                              | 217                            | 9.5                        | 7.6                   | 3.6                             | 2.2                                | 6.5                                    | 25.5                |
| C (small farms)          | 0.59           | 7.3             | 877                                | 158                            | 20.3                       | 5.6                   | 2.6                             | 4.4                                | 5.6                                    | 25.7                |
| D (tenant farms)         | 0.58           | 92.8            | 1,012                              | 198                            | 36.4                       | 5.1                   | 2.0                             | 3.4                                | 6.0                                    | 24.8                |
| E (part-time farms)      | 0.35           | 3.0             | 1,172                              | 345                            | 40.9                       | 3.4                   | 0.6                             | 1.7                                | 10.6                                   | 27.7                |
| F (remnant farms)        | 0.75           | 4.7             | 993                                | 382                            | 27.2                       | 2.6                   | 2.1                             | 2.8                                | 3.2                                    | 51.5                |
| G (nonagric. households) | 0.08           | 1.8             | 615                                | 121                            | 89.7                       | 5.1                   | 0.9                             | 11.3                               | 6.0                                    | 24.6                |
| all households           | 0.97           | 18.3            | 1,396                              | 249                            | 32.0                       | 5.6                   | 2.4                             | 2.5                                | 6.1                                    | 28.0                |

Source : author's interviews

1000W=2.07 US\$ (1975)

Tab. 2 Socioeconomic structure of the 8 sample villages (1975)

|                          | village 1:<br>Kusugul<br>west coast,<br>plain,<br>remote | village 2:<br>Chungnim-ri,<br>hilly area in<br>the Naktong-<br>gang Basin,<br>remote | village 3:<br>Twikol,<br>mountainous<br>area in the<br>Taebaek<br>Range, remote | village 4:<br>Yongdung,<br>close to<br>Pusan | village 5:<br>Panch'on,<br>close to<br>Kwangju | village 6:<br>Mun-mi, hilly<br>area in the<br>basin of<br>Kumsan<br>remote | village 7:<br>Suyogi,<br>close<br>to Seoul | village 8:<br>Hombok-dong,<br>fishing village<br>on the island<br>of Chindo,<br>remote | all 8<br>sample<br>villages |
|--------------------------|--|--|---|--|--|--|--|--|-----------------------------|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househ. %                   |
| A (large farms)          | 3 13.0   | 4 7.8  | — —   | 1 1.9  | 2 2.1  | 2 14.3   | 3 4.3                                      | — —  | 15 4.3                      |
| B (family farms)         | 5 21.7   | 20 39.2  | 17 63.0   | 5 9.4  | 26 26.8  | 6 42.9   | 10 14.3                                    | — —  | 89 25.2                     |
| C (small farms)          | 8 34.8   | 13 25.5  | 6 22.2  | 15 28.3                                      | 33 34.0  | 5 35.7   | 7 10.0                                     | 11 61.1  | 98 27.8                     |
| D (tenant farms)         | 5 21.7   | — —  | 2 7.4   | 9 17.0                                       | 5 5.2  | 1 7.1  | 27 38.6                                    | — —  | 49 13.9                     |
| E (part-time farms)      | — —  | — —  | — —   | 8 15.1                                       | 3 3.1  | — —  | 5 7.1                                      | 1 5.6  | 17 4.8                      |
| F (remnant farms)        | 2 8.7  | 7 13.7   | 2 7.4   | 5 9.4  | 10 10.3  | — —  | 3 4.3                                      | 1 5.6  | 30 8.5                      |
| G (nonagric. households) | — —  | 7 13.7   | — —   | 10 18.9                                      | 18 18.6  | — —  | 15 21.4                                    | 5 27.8   | 55 15.5                     |
| all households           | 23 100.0   | 51 100.0   | 27 100.0  | 53 100.0                                     | 97 100.0                                       | 14 100.0   | 70 100.0                                   | 18 100.0   | 353 100.0                   |

Source : author's interviews

# Regional and Intrasectoral Disparities of Development in the Agrarian Regions of South Korea

*Summary*

Eckart Dege

South Korea's 'Green Revolu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Asia's most successful programs of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has achieved two main objectives:

(1) bringing the country closer to self-sufficiency and

(2) narrowing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incomes and thus allowing agriculture to participate in the nation's economic growth.

On the otherhand, the rapid transition from subsistence to market-oriented agriculture has had some adverse effects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1) It has increased the economic and social disparities between the different agricultural regions. This tendency was already revealed by the 1970 agricultural census. Using the amount of agricultural products sold as an indicator and a cluster analysis as a method of classification, active and passive region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active regions with an above average percentage of progressive, market-oriented farms (regions B and C in Fig. 1) and passive regions with an above average percentage of subsistence and sub-

marginal farms (region A and D).

(2) These regional disparities, which form a serious obstacle to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flect a growing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in rural society and a polarization between progressive, market-oriented farms and traditional subsistence and submarginal farms. This development was studied by interviewing 353 households of 8 sample villages in different agricultural regions and analysing the use of their land through land ownership and land use mapping. This analysis showed that on the average about 30% of the interviewed households (the large farms and the family farms) belong to the progressive, market-oriented sector of South Korea's agriculture. Due to their economic possibilities and higher educational level they are able to make full use of the various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farming. Since they produce mainly for the market, they have gained from the subsidies funneled into South Korea's agriculture by the policies of a high rice price, the fertilizer for grain program and from the increased yield of the new rice

---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4, pp. 79~87, 1981,

※ Kiel Universität, W. Germany



varieties etc.' all strengthening their economic and social lead even further.

The small and tenant farmers, comprising almost 45% of the households interviewed, on the other hand, who produce mainly for subsistence, could gain little from these programs, and thus fell back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A comparison of the different villages studied made it obvious that this socioeconomic polarization has progressed furthest in the agricultural regions benefited either by favourable physical geographical conditions or by good access to urban markets, thus causing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observed.